

‘일본문화총서’ (전6권) 간행 이끈 한국일어일본학회상 한미경

빛깔 있는 일본 오타쿠 필진 208명의  
‘재미있게, 그러나 냉철하고 담담하게’ 일본읽기



일본이 나신裸身を 드러냈다. 한국일어일문학회 회원 208명이 달려들어 일본이 걸쳐 입은 12겹의 기모노<sup>1)</sup>를 벗겨낸 것이다. 한국일어일문학회 회원들이 일본의 문화와 문학, 그리고 어학을 총망라하는 '일본문화총서'를 기획한 것은 지난 2003년 3월의 일. 그로부터 채 10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 내 1차분 6권을 완간했으니, 일본이 두른 겹겹의 베일을 벗겨보겠다는 그들의 의기투합이 얼마나 강렬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일본문화총서'를 내기까지 일선에서 회원들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해 온 이는 한국일어일문학회 회장 한미경(55·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 교수) 씨다. 그는 인터뷰 장소로 옮겨가는 인사동 거리에서 "학회가 큰살림 하나를 장만했다"며 자못 흥분된 목소리로 6권의 책을 자랑스레 내보였다.

"일본문화의 단면을 독특하게 소개하는 책들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일본이란 나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깐 보는 나라는 재미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한 나라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두루 들여다봐야 하지, 단면만을 보여주면서 문화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외국잡지에서 한국을 소개하며 갓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의 사진을 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색한 정취가 흥미로울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 문화는 아니거든요. '일본문화총서'의 기획은 일본문화를 깊이 있게, 그리고 학회 역시 재미있게 소개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일본을 드러내는 데 가장 유효한 360개의 키워드를 정하고 전문필진을 구성하는 데 소요된 기획과정만 5개월이었다. 전국 대학교수와 연구원들로 구성된 필진들은 방학을 이용해 공들여 원고를 집필했고, 출판사는 학회의 열성에 답하겠다고 2003년 안으로 '일본문화총서'를 출간하겠다고 약속했다. "호환되지 않는 일어 때문에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한달음에 출판사를 찾아와 고생한 학회 편집위원들의 노력을 생각하면 밤샘을 해서라도 마무리 하는 것이 도리였다"는 것이 출판사 글로세움 편집기획자의 귀뜸이다.

한국일어일문학회 일본 오타쿠<sup>2)</sup> 필진들의 '작품'이라 불려도 좋을 '일본문화총서'는 일본에 관해 궁금했던 모든 면면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일본문화편으로 《게다도 짝이 있다》《스

모남편과 벤토부인》, 일본문학편으로 《모노가타리에서 하이쿠까지》《나스메 소세키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일본어학편으로 《높임말이 욕이 되었다》《일본어는 뱀장어 한국어는 자장》 등 모두 6권으로 구성된 책은 일본문화읽기의 깊이와 즐거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필진마다 자신의 식견을 개성 있게 풀어내는데, '취어 먹는 도쿄, 뿌려 먹는 오사카' '발에 살면 다나카 산 아래 살면 아마시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 아톰' '일본어에는 왜 이리 수동태가 많아!' 등 첫 권 첫 장부터 차분히 보기 힘들 만큼 책의 키워드는 단연 눈길을 끈다.

"제가 본 일본은 '전문가의 나라'입니다. 일본인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의 전문영역을 가지려고 하지요. 사람들 모두가 가진 전문성을 높이 사주는데, 사소함이 특별함이 되어 하나의 문화적 코드를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존중과 배려에 있습니다. 간혹 전문가 발굴에는 소홀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중견기업의 주임연구원으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다나카 노이치의 경우가 그런 예지요. 이후 일본의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받긴 했지만, 지금도 일본 어딘가에는 제2의 그리고 제3의 다나카 노이치가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알아주면 고맙고 또 안 알아줘도 그만이지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연구가 비전 없다고 여기던 1970년대, 그러나 한미경 씨가 느낀 기대감은 남달랐다. 당시만 해도 일본어과가 개설된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국제대학(현 서경대학교) 두 곳뿐이었는데, 그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들어갔다. 국내라는 거울을 통해 투사된 일본을 보는 일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일본 문부성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1974년 용기 하나만 갖고 혈혈단신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일본을 오가는 일이 불편했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시절이었다. 일본 오차노미즈대학에서 일본어학을 전공하고, 와세다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그리고 도호꾸대학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10여 년의 일본생활을 마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졸업한 대학 강단에 당당히 섰다. 의미 있는 원점이다.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학회 회원 미즈노 씨는 한국어에서 비롯된 일본어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어머니'에서

<sup>1)</sup> 일본 전통복식은 겹쳐 입기의 미학이라 단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토에를 입고 12벌의 우치키규를 겹쳐 입는 '주니히토에'는 많은 경우 20벌을 겹쳐 입기도 한다. 겹쳐 입는 일본의 전통복식은 당시 건축양식이나 일본의 기후와 풍토에 맞춰진 것인데, 쉽게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의 정서 역시 겹쳐 입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게다도 짝이 있다》중 조규환 편 '열두 겹의 기모노' 참조

<sup>2)</sup> '오타쿠'란 원래 SF 팬들이 서로를 부르던 2인칭 대명사로서, 1983년 한 칼럼니스트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또는 SF의 광적인 팬을 지칭해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현재는 마니아의 단계를 넘어 어떤 분야에 대해 장인의 시각,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통달의 시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로 사용되고 있다. 《스모남편과 벤토부인》중 초차키코이치 편 '오타쿠와 마니아, 무엇이 다른가?' 참조

‘오무’가, ‘곰’에서 ‘쿠마’가, ‘섬’에서 ‘시마’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김영민 선생님은 일본의 궁 추녀 밑에 있는 세 마리 원숭이를 통해, 구정호 선생님은 화투에 나타난 일본인의 계절감으로 일본 문화를 보여주는데 이처럼 재미있는 일본문화 책도 없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일본문화를 쉽게 비판하거나 혹은 무작정 동경하는데, 왜곡도 찬양도 없는 책은 그들에게 좋은 가치 판단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으면 하지만,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애독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책 속에 실린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하나 건네자면, “어머니와는 두 번 만나는데 아버지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sup>3)</sup> 16세기 초에 나온 일본의 수수께끼집 《나조다테》에 실려 있는 것인데, 일본 고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 문제를 풀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예만 보아도 전문적인 깊이와 대중적인 재미를 동시에 갖추려는 필진들의 마음은 너끈히 증명된다. 정인에 대한 외사랑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일본에 대한 필진들의 논지는 냉철하며 담담하다. “냉철함과 담담함이야말로 한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이 그의 대답인데, 바로 여기에 책이 갖는 진정성이 아름답게 드러난다. 일본을 보는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담담한 시선도, 그것을 품고 있는 책의 미덕도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학문이 상아탑 안에만 머

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한국일어일문학회 회원들의 합일된 마음은 자명하다.

“여러 학회에서 책 출간을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학회의 의미 있는 성과임에 모두들 공감하며 부러워하는데, 긴장하는 모습들이 역력해요. 우리 학회의 이번 책 출간을 계기로 조만간 여러 학회에서도 일반인들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뒤따를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일어일문학회에서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내년 출간을 목표로 2차분을 기획중에 있다. 이번 책에서 다 못 담은 일본문화를 통해 일본의 사회상을 짚어보며, 궁극적으로는 일본학에 대한 자리를 폭넓게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작업을 본다면 2차분 출간에 오랜 기다림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고두고 벗 삼아도 좋을 ‘일본문화총서’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일본의 아름다운 나신을 감상하며 긴 겨울밤을 보낼 수 있게 됐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sup>3)</sup> 16세기 일본어는 지금과 같지 않다. 당시 고어로 어머니는 ‘파파’, 아버지는 ‘치치’로 발음되는데, 곧 어머니의 ‘파파’는 모두 입술소리이므로 발음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두 번 만나게 되며, 아버지 ‘치치’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지 않는다. 따라서 수수께끼의 정답은 ‘입술’이다. 《높임말이 욕이 되었다》중 황광길 편 ‘어머니와는 두 번 만나는데 아버지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참조)

## ● ‘일본문화총서’ 둘러보기

일본문화총서(전6권) | 한국일어일문학회 지음 | 글로세움 | 각권 300쪽 내외 | 각권 값 12,000원



### 일본문화편

《게다도 짝이 있다》《스모남편과 벤토부인》

흥미로운 키워드가 단연 압권인 책. 전통문화편 《게다도 짝이 있다》현대문화편 《스모남편과 벤토부인》으로 구성되었다. 민속 씨름 스모에서 젊은이들의 최고 인기 스포츠인 격투기 K-1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일본문화를 다층적으로 면밀히 살펴본다.



### 일본문학편

《모노가타리에서 하이쿠까지》《나쓰메 소세키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8세기 신화와 전설부터 시작해 중세, 근세, 메이지시대를 거쳐 전후 현대문학까지 아울렀다. 특히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문학적 저항과 재일문학의 현주소까지 살피고 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단상이 아닌, 문학을 통해 일본의 문화를 확장시켜 보는 필진들의 수고로움이 돋보인다.



### 일본어학편

《높임말이 욕이 되었다》《일본어는 뱀장어 한국어는 자장》

자칫 까다롭고 난해할 수 있는 일본어학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 ‘일본어의 조상이 훈민정음이었다?’ ‘일본인은 대화 중에 왜 자꾸 끼어들나’ 등 눈길 끄는 키워드를 통해 일본어의 역사와 현재를 아우르고 있다. 일본어의 시작, 1000년 전, 500년 전, 개설 및 음운, 문자 및 문자구성 등으로 파트를 더욱 친절히 나누었다.